

또 다시 떠나는 만남

감사절을 맞아 둘째 딸 부부가 어려운 시간을 내어 다녀갔다. 모처럼 만나 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다. 그리고 어제 늦게 동부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일정이라서 더 맛있는 것을 사 먹이고 싶고, 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많은 이야기를 뒤로 하고 헤어졌다.

많이 섭섭하고 많이 허전한 마음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실은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건강하기를 당부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다.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 부탁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표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자녀의 가정을 위하여 멀리 떨어져 사는 동안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달라는 부탁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요 방법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딸의 부부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하니 허전하고 섭섭한 마음이 많이 가라앉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기 때문이다.

실은 그렇게 떠나보내기 위하여 평생을 키운 것이고 그렇게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수 십 년 동안 가르쳤었다. 하지만 막상 나에게 닥치니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길이 부모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최선의 일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말이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꼬리가 길어가는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6절)라고 말씀하신다. 그 안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자녀들의 인생이 있고, 그들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는다.

비행장 문으로 들어가는 딸 내외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나에게 달려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음이 기뻐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것이 자녀의 인생뿐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값진 믿음의 신앙생활이 될 것이다.